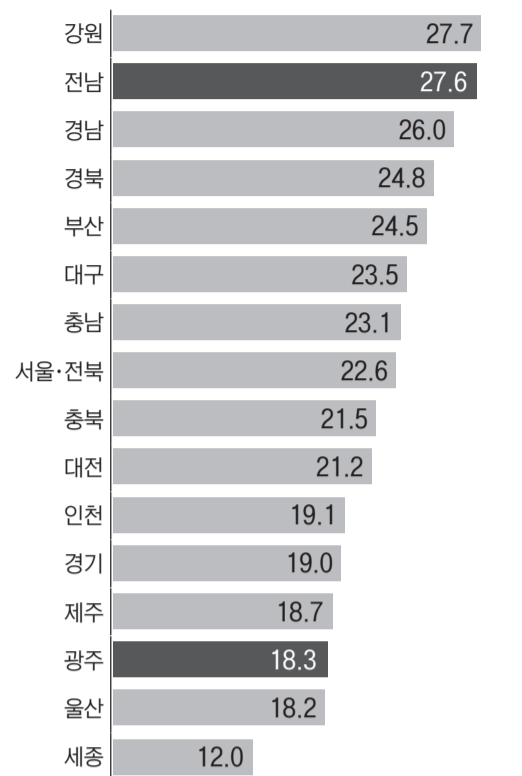


창업 후 15년 이상 기업 전남 높고 광주 낮다

■ 15년 이상 창업기업 비율



중기부 소상공인실태조사...전남 27.6% 전국 2위·광주 18.3% 하위권
 평균 창업비용 광주 8900만원 전국 15위·전남 1억700만원 전국 8위
 5년 미만 사업체 비율 광주 47.1%...세종·인천 이어 3번째로 높다

창업한 뒤 15년 이상 가는 기업 비율이 전남은 전국에서 높은 수준인 반면, 광주는 하위권을 전전했다. 평균 창업비용은 광주 8900만원·전남 1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일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확정) 결과에 담겼다.
 지난 2019년 기준 영업기간별 현 사업체 비율을 보면 광주·전남 모두 5년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의 경우 사업체의 절반 가까이(47.1%)가 5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5-10년이 21.6%로 뒤를 이었고, 15년 이상(18.3%), 10-15년(13.0%) 순이었다.
 전남지역도 5년 미만 영업한 사업체 비율이 36.7%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27.6%), 5-10년(21.0%), 10-15년(14.6%)이 뒤를 이었다.

15년 이상 사업체 비율은 전국에서 전남 2위를 차지했고, 광주는 15위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 비율은 22.2%였고, 강원(27.7%), 전남(27.6%), 경남(26.0%), 경북(24.8%), 부산(24.5%), 대구(23.5%), 충남(23.1%), 서울·전북(각 22.6%), 충북(21.5%), 대전(21.2%), 인천(19.1%), 경기(19.0%), 제주(18.7%), 광주(18.3%), 울산(18.2%), 세종(13.0%)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 사업체 비율을 비교해보면 광주는 신생 도시인 세종(61.9%)과 인천(48.6%)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았고, 전남(36.7%)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전남의 사업체 1곳당 창업비용은 '두 자릿수' 떨어졌다.
 2019년 기준 사업체당 평균 창업비용은 광주

8900만원·전남 1억7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2%(-1100만원), 14.5%(-1800만원) 떨어졌다.
 전국 평균 창업비용은 1억200만원이었고, 제주 비용이 1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은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고, 광주는 대구(8200만원)와 대전(86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광주·전남지역 평균 창업횟수는 1년 새 소폭 증가했다.
 광주 평균 횟수는 지난 2018년 1.5회에서 이듬해 1.6회로 증가했고, 전남은 1.4회에서 1.5회로 늘었다.
 전국 평균 창업횟수는 1.5회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 2019년 자신의 사업체가 '첫 번째 창업'이라고 답한 비율은 광주 56.4%, 전남 59.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2번째 창업이라고 답한 비중이 광주는 지난 2018년 29.5%에서 이듬해 36.1%로 6.6%포인트 증가했다. 전남도 29.0%에서 32.0%로 그 비중이 늘었다.
 전 사업체 가운데 가맹점 창업 비율은 광주 6.3%(8만2200개 중 5200개), 전남 6.4%(10만8000개 중 6900개)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광주 5.9%,

전남 6.3%에 비해 소폭 오른 수치다.
 사업체 신규창업 비율은 광주는 줄고, 전남은 늘었다.
 사업체 가운데 신규창업 비율은 2019년 기준 광주 79.3%, 전남 82.7%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비율(80.3%)보다 광주는 소폭 낮았고, 전남은 웃돌았다.
 광주 신규창업 사업체 비율은 지난 2018년 86.7%에서 이듬해 79.3%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은 79.6%에서 82.7%로 증가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광주 사업체 가운데 신규창업에 이어서는 인수창업(19.7%)과 가업승계(1.0%) 순이었다. 전남은 신규창업 82.7%, 인수창업 13.6%, 가업승계 3.6% 비중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가업승계 비중은 전국 평균(2.5%)을 웃돌았다.
 한편 지난해 광주 창업기업은 3만9333개로 전년(3만5065개)대비 12.2% 증가했고, 전남은 4만6390개로 전년(4만2854개)대비 8.3% 증가했다.
 광주·전남 모두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15.5%)은 밑돌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현대차그룹, SK와 수소 사업 협력 추진 현대차그룹은 SK그룹과 수소전기차 1500여대 공급, 수소 및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한국판 수소위원회(K-Hydrogen Council) 설립 추진 등 수소 관련 사업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정에 환경부장관. <현대차그룹 제공>

전남 논·밭 45년간 광주 면적의 1.5배 사라져

7만5345ha 감소한 28만6396ha
 지난해 광주 밭 면적 전국 최대 감소

전남 경지면적이 45년 전에 비해 5분의 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논과 밭 등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남 경지면적은 28만6396ha(헥타르, 1ha=0.01km²)로, 1년 전보다 0.6%(-1852ha) 감소했다.
 전남 경지면적은 전국(156만4797ha)의 18.3%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해 전남 경지면적은 논 16만8387ha·밭 11만8009ha로 구성됐다.
 전남 논 면적은 전년보다 0.4%(-703ha) 줄고, 밭은 1.0%(-1149ha) 감소했다.
 논 면적이 가장 큰 시도는 전남인 반면, 밭 면적

은 경북(13만9387ha·18.8%)이 가장 넓었다.
 전남 경지면적은 지난 2013년 이후 8년 연속 줄어들며, 매년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관련 통계를 낸 지난 1975년 36만1741ha에 비해서는 20.8%(-7만5345ha) 감소했다. 광주 전체 면적(5만118ha)의 1.5배 수준이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논·밭을 포함한 경지면적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대전(-4.4%~-164ha)였다. 광주 밭 면적은 전년보다 3.9%(-135ha)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서는 해남 경지면적이 3만3623ha로, 전남의 11.7%를 차지하며 가장 넓었다.
 경지면적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년보다 1.8%(-130ha) 줄어든 여수시였다. 논 면적 감소율은 광양(-4.0%~-53ha)이 가장 컸고, 강진(-7.6%~-148ha)에서 밭 면적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촌 재능 나눔 실천할 봉사자·단체 찾습니다

농어촌공사, 15일까지 모집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30곳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농촌재능나눔사업은 지난해까지 7340개 마을의 주민 42만2079명이 혜택을 받았다.
 매년 활동지원사업, 의료전문 기관원, 대학생 등

아리 지원 및 대학생캠프,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에게 소요되는 경비 일부(최대 20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마을에서 비대면 또는 비접촉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

정한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등 4개 분야에서 50여 개 세부 활동 중 선택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오는 15일까지 스마일재능뱅크(smilebank.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모 결과 발표는 3월30일 스마일재능뱅크 사이트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기운 바람개비에 담아 나눠드려요”

광주신세계, 새기운 프로젝트

(주)광주신세계가 봄의 싱그러움을 담은 바람개비와 응원 스티커를 고객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6일부터 선착순 600명(세트) 고객에게 바람개비와 응원 스티커를 증정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이들 증정품을 받을 수 있다.
 1층 광장에는 바람개비 꽃으로 장식한 공간도 만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5일부터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신세계 바이어 추천 에너지 키트'를 나눠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